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¹⁾

황여정 선임연구위원
임희진 선임연구위원
정은주 선임연구위원

요약

- 조사목적** 최근의 근로환경 변화를 반영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근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전국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역(17개 시·도) 및 학교급·고교 유형을 층화 변수로 설정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분석 대상은 7,212명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24년 5월~7월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년 연구과제인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를 발췌·요약한 것임.

1 청소년 근로경험 및 기본 현황

■ 청소년 근로 경험률

- 지금까지 일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14.0%, 최근 1년 동안 일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8.5%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생애 근로 경험률은 8.0%에 불과하나 고등학생은 20.2%로 2.5배 높게 나타남.
- 최근 1년간 근로 경험률의 경우 중학생 3.5%, 고등학생 13.7%로 약 4배의 격차를 보임.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 참여가 활발해지는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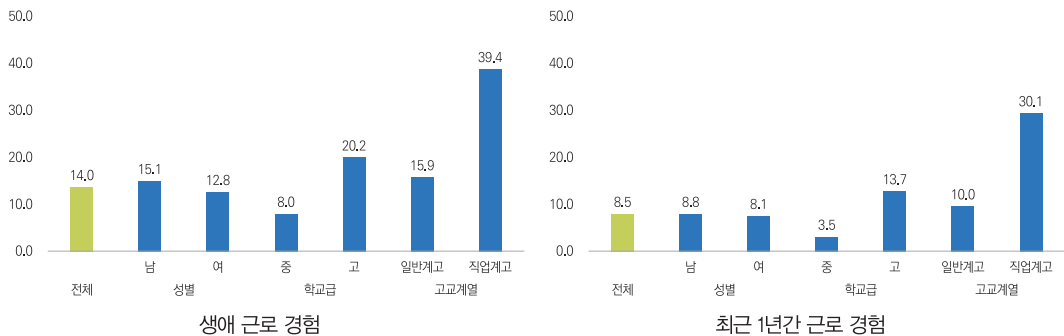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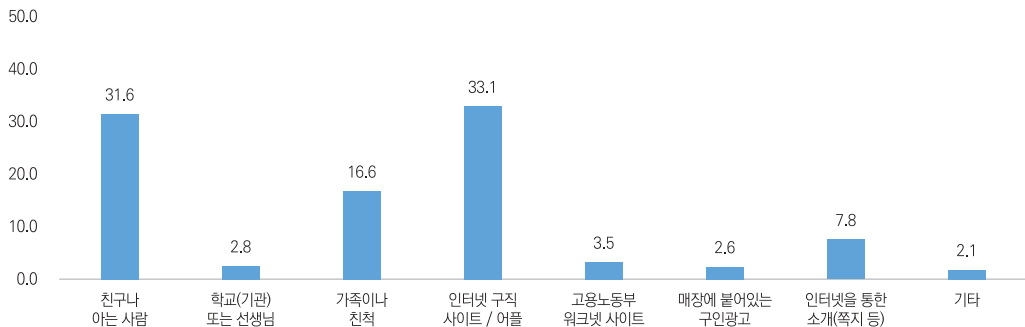


그림 1 근로 경험률: 생애 경험 및 최근 1년간 경험 (단위: %)

■ 주요 구직 경로

- 주요 구직 경로는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
- ‘인터넷 구직 사이트/어플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응답이 33.1%로 가장 높았고, ‘친구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31.6%,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서’ 16.6% 순으로 나타남.
- 전통적인 인맥 중심 구직(친구·가족 48.2%)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구직(33.1%)이 청소년 구직의 양대 축을 형성함.
- ‘인터넷을 통한 소개(쪽지, DM, 댓글, 이메일 등)를 통해서’ 구한다는 응답도 7.8%를 차지해,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구직 경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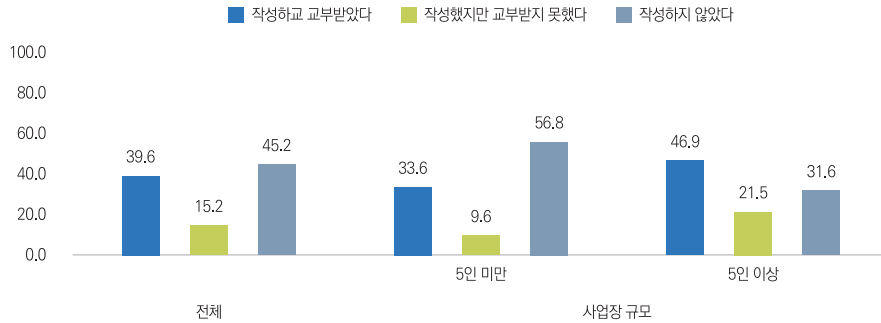
주: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그림 2 주된 구직 경로 (단위: %)

2 근로계약 및 권리보장 실태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실태 파악을 위해 최근 1년 동안 했던 일 중 가장 주된 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은 비율은 39.6%에 불과함.
 -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했다’ 15.2%, ‘작성하지 않았다’ 45.2%로, 여전히 많은 청소년이 적절한 근로계약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은 비율이 46.9%로, 5인 미만 사업장(33.6%) 보다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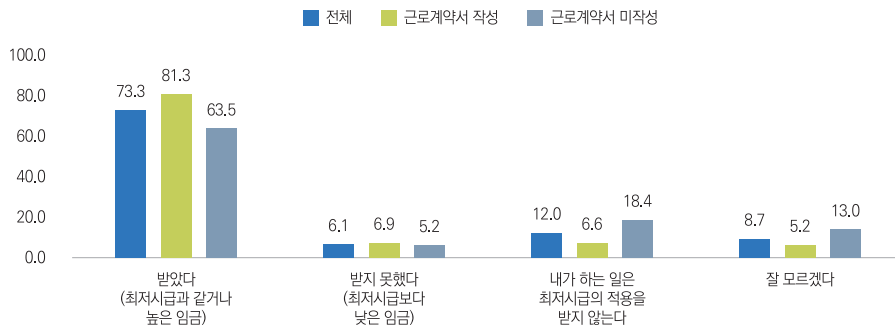


주: 최근 1년 동안 일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하며, 했던 일 중 가장 주된 일을 기준으로 함.

그림 3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단위: %)

■ 최저임금 적용 여부

- 청소년들이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최저시급과 같거나 높은 임금을 받았다’는 응답이 73.3%, ‘최저시급을 적용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6.1%로 나타남.
 - 내가 하는 일은 최저시급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12.0%)는 응답과 ‘잘 모르겠다’(8.7%)는 응답은 약 20%를 차지함.
 - 최저임금 적용 실태를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비교해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집단은 최저시급을 적용받은 비율이 81.3%로 미작성 집단(63.5%)에 비해 높게 나타남.



주: 최근 1년 동안 일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하며, 했던 일 중 가장 주된 일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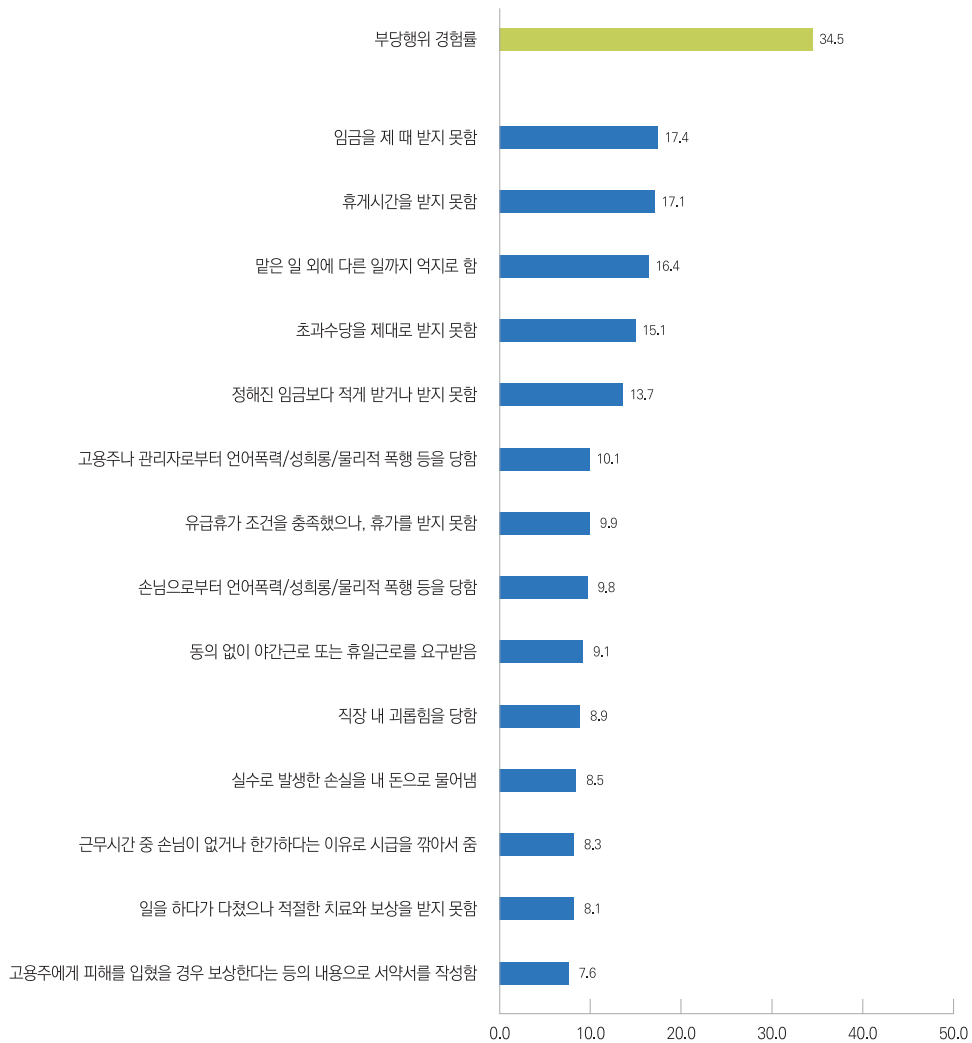
그림 4 최저 임금 적용 여부 (단위: %)

3 부당행위 경험

■ 부당행위 경험률이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 청소년 근로환경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 14가지 유형의 부당행위 상황을 제시하고 각각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음. 이 가운데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4.5%로 나타남.

– 주요 부당행위 유형으로는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했다’ 17.4%, ‘일을 하면서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 17.1%, ‘맡은 일 외에 다른 일까지 억지로 한 적이 있다’ 16.4%, ‘초과근무에 대해 초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15.1%,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다’ 13.7%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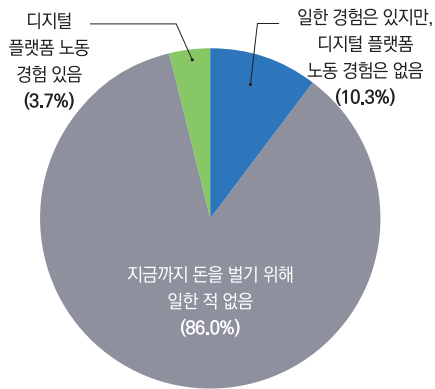


주: 최근 1년 동안 일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하며, 했던 일 중 가장 주된 일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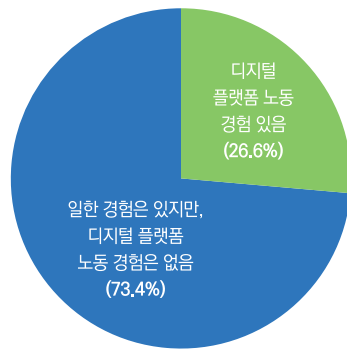
그림 5 주요 부당행위 경험(중복응답) (단위: %)

4 디지털 플랫폼 노동 참여 현황

-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근로 형태로 자리잡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지금까지 디지털 플랫폼 노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3.7%로 나타남.
 - 이 결과를 생애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기준으로 재산출해보면,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중은 26.6%를 차지함.



[전체 응답자 대상(n=7,212)]



[생애 근로 유경험자 대상(n=1,414)]

그림 6 디지털 플랫폼 노동 경험

5 청소년 근로 실태에 대한 2014년 및 2024년 조사 결과 비교

- 청소년 근로 실태와 관련한 지난 10년 간의 공과를 점검해보기 위해, 시계열 비교를 실시함.

〈 시계열 비교를 위한 자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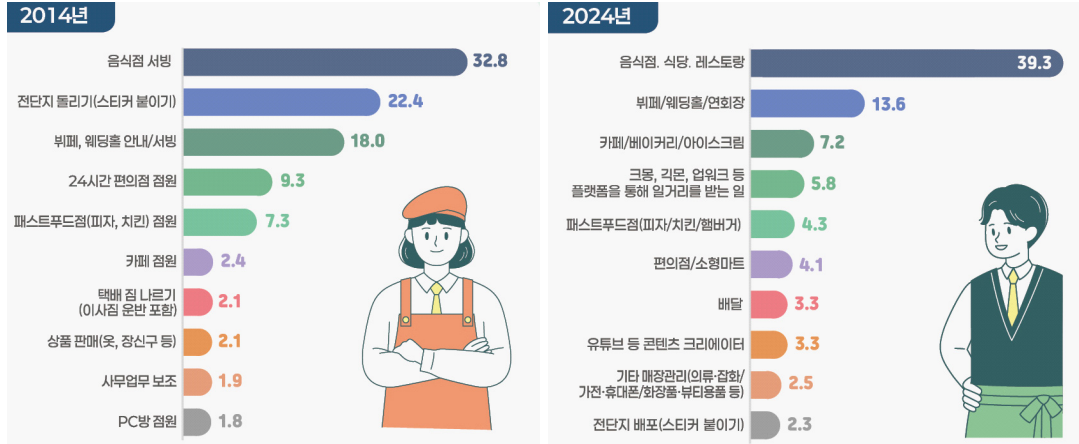
- 비교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4년 실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데이터 (총 사례수 4,023명)
- 비교 분석의 대상: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응답 결과
 - 2024년 연구의 조사 대상은 중1~고3이나, 2014년 조사는 중3~고3을 대상으로 실시됨.
 - 이에 비교의 정확성을 위해, 시계열 비교에 사용한 2024년 결과는 전체 응답자(중1~고3) 가운데, 2014년 조사와 동일한 연령 대에 해당하는 중3~고3만을 추출하여 별도로 산출한 결과임. 비교 분석에 적용된 2024년 중3~고3의 응답자수는 5,230명임.

- 근로 업종의 구조적 변화

- 근로 업종의 구조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2014년과 2024년 조사를 비교한 결과, 청소년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서 상당한 변화가 확인됨.
 - 2014년과 2024년 모두 음식점 서빙, 뷔페 · 웨딩홀 등이 주요 업종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10년 전에는

전단지 돌리기가 2위(22.4%)를 차지한 반면, 2024년 조사에서는 10위(2.3%)로 크게 감소함.

- 반면, 디지털 플랫폼 관련 일자리는 2024년 기준 상위 10위 안에 3개가 포함되어 청소년이 일하는 업종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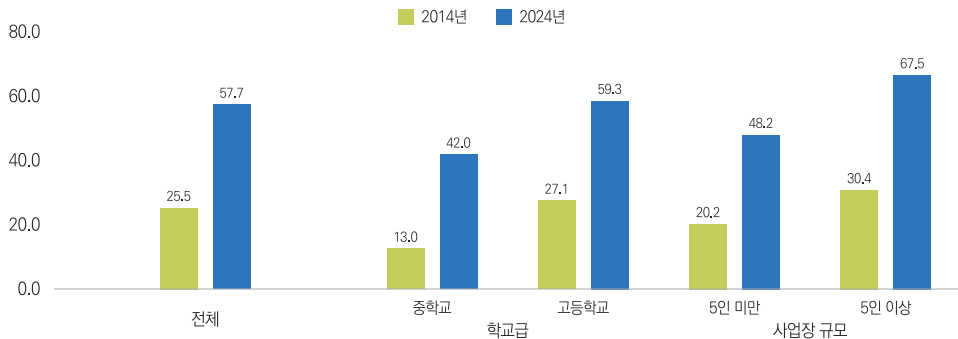
주: 1) 중3~고3 응답 결과를 대상으로 함.

2) 2014년은 '최근 1년 동안 했던 일 중에서 현재 하고 있거나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하고, 2024년은 '최근 1년 동안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주된 일'을 기준으로 함.

그림 7 상위 10위 근로 업종: 2014년과 2024년 비교 (단위: %)

■ 근로계약서 작성률

- 근로계약서 작성률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으나 여전히 부족함. 2014년 25.5%에서 2024년 57.7%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20.2% → 48.2%), 5인 이상 사업장(30.4% → 67.5%) 모두 크게 개선되었음.
- 하지만 여전히 40% 이상의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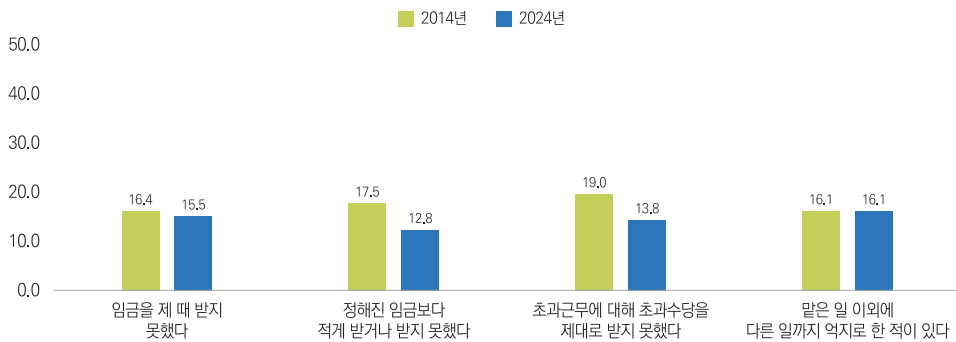
주: 1) 중3~고3 응답 결과를 대상으로 함.

2) 2014년은 '최근 1년 동안 했던 일 중에서 현재 하고 있거나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하고, 2024년은 '최근 1년 동안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주된 일'을 기준으로 함.

그림 8 근로계약서 작성률: 2014년과 2024년 비교 (단위: %)

■ 주요 부당행위 경험

- 주요 부당행위 유형에 대한 경험을 비교 결과, 부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청소년이 부당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014년 16.4%, 2024년 15.5%로 유사한 수준을 보임. 그에 비해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014년 17.5%에서 2024년 12.8%로 감소하였고, ‘초과근무에 대해 초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014년 19.0%에서 2024년 13.8%로 감소함. ‘같은 일 이외에 다른 일까지 억지로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14년과 2024년 모두 16.1%로 동일한 응답 비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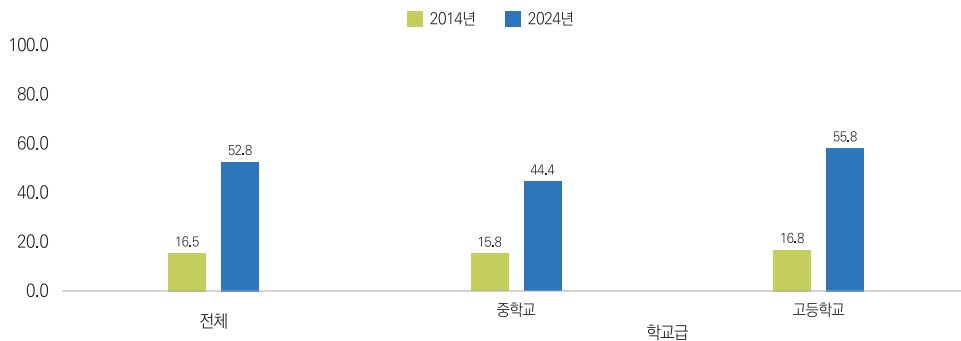
주: 1) 중3~고3 응답 결과를 대상으로 함.

2) 2014년은 '최근 1년 동안 했던 일 중에서 현재 하고 있거나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하고, 2024년은 '최근 1년 동안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주된 일'을 기준으로 함.

그림 9 주요 부당행위 경험률: 2014년과 2024년 비교 (단위: %)

■ 노동인권교육 경험률

- 노동인권교육 경험률은 크게 증가함.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2014년 16.5%에서 2024년 52.8%로 약 3.2배 증가해 양적 확대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 경험률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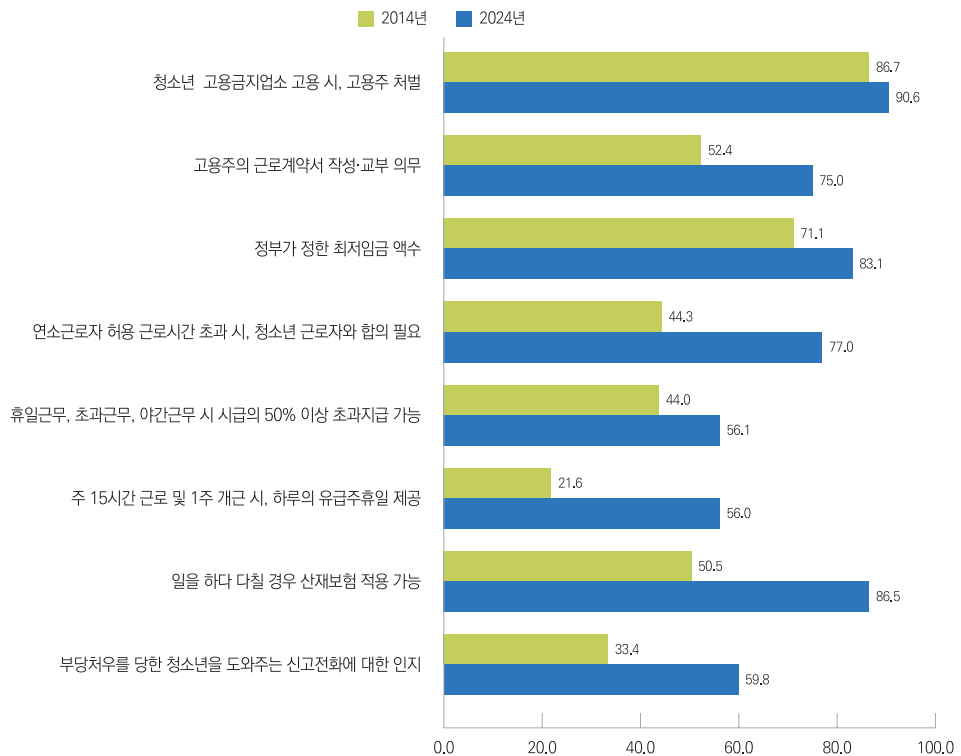
주: 1) 중3~고3 응답 결과를 대상으로 함.

2) 2014년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학교에서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이고, 2024년은 '지금까지 학교(정규 교과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을 산출한 것임.

그림 10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률: 2014년과 2024년 비교 (단위: %)

■ 근로 보호 정책 인지도

- 근로 보호 정책 인지도도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됨. 2014년 대비 2024년의 근로 보호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모든 항목에서 상승함.
- 특히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인지도는 2014년 50.5%였으나 2024년에는 86.5%로 36.0%p 증가함.



주: 중3~고3 응답 결과를 대상으로 함.

그림 11 근로 보호 정책 인지도: 2014년과 2024년 비교 (단위: %)

참고문헌

안선영, 황여정, 이수정, 이로사(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